

〈기획 논문 - 접경의 인문학 : 조우와 충돌〉

種族誌와 전쟁동원

- 일제말 전쟁기 접경지 대만의 南方담론*

최말순**

목차

- I. 남방담론의 등장배경과 『南方』 잡지
- II.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산업 가치
- III. 서구 제국주의 억압과 東亞의 해방
- IV. 미개한 종족과 건강한 토인
- V. 종족지에서 전쟁동원으로

I. 남방담론의 등장배경과 『南方』 잡지

일본의 근대국가 전환과 제국주의 국가로의 발전에서 富國強兵 정책이 핵심적인 본질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동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과의 경제적, 군사적인 접촉과 충격을 겪으며 근대로 진입한 일본은 자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해 서구와 동일한 방식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대만문학연구소 부교수

인 제국주의 팽창정책으로 일관했다. 메이지유신(1868) 이후 홋카이도 개척과 아이누족에 대한 동화정책(1869), 牡丹社사건과 류큐병합(1874)¹⁾, 청일전쟁(1894-5), 러일전쟁(1904-5)을 거치며 진행된 대만과 조선의 식민지 편입, 1930년대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중국진출 등에서 그 군사적, 경제적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특히 1932년 만주국 건립을 계기로 시작된 五族協和의 다민족국가 실험은 중일전쟁(1937) 이후 日滿支를 아우르는 동아협동체론과 동아신질서 구상으로, 나아가 대동아전쟁을 거치며 남양까지 포괄하는 대동아공영권이란 정치경제공동체로 확대, 심화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1914-8) 이후 內南洋에 대한 위임통치를 통해 남양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온 일본은 당시 해양제국으로의 성장을 배경으로 중국 남부 연안에서 동남아시아, 인도, 호주, 멀리는 하와이까지를 남방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이들 지역과 종족에 대한 각종 담론을 생산하였다. 특히 서구 근대의 학습과 모방을 통해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한 일본이 1930년대 후반 중국영토에 대한 본격적 침략과 뒤이은 서방국가와의 전쟁이란 상황에 직면하면서 초기 부국강병의 목표를 위해 설정했던 脫亞入歐의 사고를 완전히 상반된 聯亞抗歐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한 교착상태의 타개, 미국의 대일본 수출 중단에 따른 군수물자 보급로의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남양군도로의 군사적 진출이란 상황이 놓여있다. 소위 남진정책은 일본에서 오랜 기간 구상되어온 것이며 1940년대 전쟁과 맞물려 구체화되면서 구미와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²⁾ 남방으로 편입된 지역이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

-
- 1) 1874년 류큐 왕국의 조난자들이 대만원주민 영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해된 사건으로 일본은 이를 구실로 대만에 출병하였고 청일양국 간의 외교충돌로 비화되었으며 그 결과 류큐를 오키나와현으로 복속시켰다.
 - 2) 일본의 南進정책은 역사적 연원이 오래된 것으로 1880년대부터 줄곧 제기되어왔는데, 초기 민간 소상공인들의 동남아 모험에서 비롯되어 학자들에 의한 무역과 경제담론으로, 다시 국책성격의 南進論으로 변해왔다. 중일전쟁 이후 군사적인 남진정책이 결정되면

란드 등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이자 그들의 경제적 명맥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남방담론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등장하였고 식민지 대만의 언론을 통해서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선전되었다.

본문은 일제 말 전쟁 시기에 발간된 유일한 합법적 漢文잡지였던 『南方』을 대상으로 일본이 건립한 남방담론의 내용과 배경,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제는 1937년 7월 蘆溝橋사변으로 불리는 대중국 전쟁을 기획하면서 식민지 대만에 대한 언론 통제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 사변 발생 이전인 4월부터 당시 타이베이(북부), 타이중(중부), 타이난(남부)을 주요 발간지로 하는 3대 관방신문 『台灣日日新報』, 『台灣新聞』, 『台南新報』의 漢文欄을 폐지하였고 동시에 대만 본도인의 언론공간과 창작활동 역시 매우 축소되었다. 곧 이은 6월에 좌익 지식인 楊逵(1905-1985)가 발간하던 진보적 문학잡지 『台灣新文學』이 정간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漢文의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중일전쟁 이후 내세운 동아신질서 구상에서 대만은 중일간의 교량역할을 부여받았고 백화문을 포함한 한문은 이런 국책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매개체로 인식되었다. 이런 이유로 1937년 7월 『南方』의 전신인 『風月報』가 이전의 『風月』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창간되었던 것이다. 이 시리즈 잡지의 연혁을 보면, 1935년 신문 성격의 『風月』(1-44기)로 발간되다가 1937년 7월부터 『風月報』(45-132기) 잡지로 개편되었고 1941년 7월에 다시 『南方』(133-188기)으로 개명되었으며 1944년 2월과 3월에 『南方詩集』(189-190기)을 끝으로 모두 190기가 발간되었다. 흔히 이 잡지의 성격과 특징으로 구지식인과 자산계급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³⁾ 전통적, 통속적, 대중적 성향이며 1937년 漢文이 금지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서 남방열도들이 새로운 점령지, 새로운 식민지로 부상하고 대동아공영권의 구상이 현실화되자 남방열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3) 『風月報』 시기에는 회원제로 운영되었다.

있다.⁴⁾ 또한 1930년대 문학잡지로서는 비교적 늦게 출발하여 대부분의 문학지가 폐간되던 전쟁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으며 매번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 시기의 시대상황과 문단대응을 단계별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위상을 가진 매체라고 하겠다.

그중에서도 『南方』으로 개명한 1941년 7월 이후에는 당시 전쟁 상황과 일본의 전쟁논리를 직접적으로 선전하고 대변하고 있어 태평양전쟁 시기 당국이 한문 식자층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하겠다. 『風月報』로의 재편 이후 특히 1937년 중국에 대한 전면적 군사행동과 중일전쟁의 발발, 1940년 일본 大政翼贊會의 성립과 신체제 주장이 나온 뒤 권두언과 편집후기 등을 포함한 잡지의 전체 내용에서 日華親善의 당위성, 지원병제도와 징병제 실시에 대한 적극적 옹호, 전시 국민 의식을 강화하는 皇民奉公運動에 대한 적극적 호응, 총후 국방과 생산의무 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쟁구호와 전시표어를 표지에 배치하는 등 전시체제 하 일본의 주장을 전달하는 농후한 국책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시기 대만의 잡지발간이 일괄적으로 검열의 제한을 받았고 특히 1937년 이후 황민화 시기에는 더욱 직접적인 국책선전의 요구에 부응해야 가능했다는 점에서도 『南方』의 국책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일제 말 전쟁 시기에 들어서 원래 유한계급의 음풍농월 성격이었던 『風月報』에서 남진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南方’으로 개명했다는 사실에서도 그 성격과 목적이 매우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개명 후 처음으로 나온 133기에 ‘祝辭와 感言’이란 란을 마련해 총독부 평의원, 황민봉공회 위원 등 유력인사들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축하문을 실었는데 대부분 국책에 순응하기 위한 개명임을 천명하고 있다.⁵⁾

4) 楊永彬, 『從『風月』到『南方』-論析一份戰爭時期的中文文藝雜誌』, 『風月·風月報·南方·南方詩集』(台北:南天書局, 2001), 68-150면.

5) 이 난에는 府評議員 陳啓貞과 황민봉공회위원 龜山炎亭의 글을 비롯해 모두 6편의 축

체제가 유신되고 천황의 덕이 창명한 지금, 우리들은 제국의 신민으로 마땅히 국책에 순응하여 아마도 민족의 정신을 발휘하고 총후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신생의 聖道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동아의 공존공영을 위해 南方으로 개명한 것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남방문화를 위해 약진하는 기구가 될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 문학이 나아갈 방향이다.(台南 陳敬儒)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남방으로의 개명과 새로운 출발을 예고한 1941년 7월의 시점에서는 ‘南方’이 제국의 남단인 대만과 중국 남부지역인 華南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남방잡지의 사명으로 제기된 남방문화의 건설은 여전히 식민지 대만에 일본과 중국, 만주의 친선과 제휴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⁶⁾ 비록 1940년 코노에 내각이 주도한 신체제⁷⁾ 그중에서도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범위를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전체로 확대한다는 지침에 호응하여 개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일전쟁의 이데올로기인 日滿支블록, 동아협동체, 동아신질서 구상에서 강조된 日華親善과 문화제휴의 틀 안에서 ‘南方’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南方』에서 ‘남방’이 동남아시아 전역과 나아가 더 남쪽의 태평양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일본이 미얀마, 네덜란드령 동인도, 뉴

하문이 실려 있는데 내용은 인용문과 대동소이하다.

- 6) 吳漫沙, 『南方文化的新建設』(133期, 8면)에서는 남방문화를 日華滿의 친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고, 龜山炎亭도 만주, 중국과 소통하며 日華滿의 친선과 제휴를 이루는 것이 남방잡지의 문화임무라고 했다.
- 7) 신체제는 제2차 코노에 내각이 주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파시즘지배체제로 독일 나치즘, 이태리 파시즘과 일본 군국주의가 중심이 되어 기존 서구근대의 핵심 내용인 자본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반대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며, 이 주장이 제기된 후 일본 내 정당이 해산되고 군부 파시스트의 정치적 의사과정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대정익찬회가 구성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대만에서는 황민봉공회(1941)가, 조선에서는 국민총력조선연맹(1940)이 성립되고 전시동원이 시작되었다.

기니, 솔로몬 제도 등 동남아시아와 그 이남 지역을 침공하고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라바울을 점령하면서부터이다. 1942년 4월 15일에 발간된 150기圖南先聲란에 호주를 소개하는 문장이 실린 후 이 지역에 대한 각종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南方』에 실린 남방관련 문장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수/날짜	작자	문장명
139/1941.10.1	退嬰	亞南第一廣漠之濠洲
150/1942.4.15	曉風	東亞共榮圈的資源
	明達譯	新嘉坡陷落以後
	天驥	印度反英運動的趨勢
	伯孚	水深火熱中的南洋土人
151/1942.5.1		南方文化建設與台灣
	洪潮	烽火中的荷屬東印度
		南方衛生對策確立之必要
	新人	緬甸經濟綜觀
152/1942.5.15		南方經營之基本方針
	文正	滿街槐樹的仰光
154/1942.6.15	珊明	南洋華僑的企業及金融機關
	洪潮	戰雲密佈的澳洲
155/1942.7.1	大觀	澳洲的概況
	大可	萬隆與泗水
158/1942.8.15	洪潮	皇軍攻略下之緬甸
159/1942.9.1	東村正夫	荷印的經濟觀
160/1942.9.15		荷印農業投資
161/1942.10.1		南洋華僑與東亞共榮圈之建設
	松本於菟男	南洋華僑問題與在日華僑之使命
163/1942.11.1	雨山	南洋之女兒國
167/1943.1.15		昭南市與馬來半島之建設
170.1合刊/ 1943.3.15	志銘	爪哇雜感

기수/날짜	작자	문장명
172/1943.4.1	大原二郎	狂亂의 澳洲
174/1943.5.1	杉浦健一	新幾內亞土著의 奇風異俗
	陳因明	華僑婦女의 生活
175/1943.5.15	山本實彦	記馬來半島
196/1943.6.1	禮耕生	東條首相躬臨非島
177/1943.6.15	松本信廣	越南의 土著民族
178/1943.7.1	闕名	佛國緬甸
	仁	緬甸人의 生活
179/1943.7.15	東條首相祝詞	印度獨立運動積極展開
180.1合刊/ 1943.8.1	黃可軒	滇緬公路之沿革(上)
	朱學誠編譯	孟加拉灣歷驗記
	陳玉清譯	安南의 傳說
	闕名	緬甸의 女性
182/1943.9.1	黃可軒	滇緬公路之沿革(下)
183/1943.9.15	徐道之編譯	安達灣群島之旅
184/1943.9.15	青木勇	菲律賓의 女性

이들 문장의 내용을 총괄하면 남방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인류학, 인종학, 지리학, 역사학적 지식과 정보, 이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가치의 강조, 그리고 당시 진행 중인 전쟁관련 추이와 관련한 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들 문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시체제 국책선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잡지 『南方』에서 어떻게 남방지역을 인식했으며 어떤 내용을 식민지 대만에서 전파하려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⁸⁾

8) 이들 문장을 쓴 작자에 대한 연구는 현재 전무하다. 대만인은 대부분 필명을 사용하고 있어 고증하기가 어려운데 총독부 관련기관 종사자일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인 작자의 문장은 일본 잡지나 관방책자에서 轉載한 것으로 보인다.

II.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산업 가치

남방에 관한 첫 문장인 「남아시아에서 가장 광막한 호주」⁹⁾는 호주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인구분포, 지리특색, 자원과 산업분포, 미래 가능성까지 매우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호주는 하나의 대륙으로 볼릴 만큼 태평양에서 넓은 지역이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 여러 번 『南方』에 등장하는데 「진운이 감도는 호주」¹⁰⁾, 「호주 개황」¹¹⁾, 「광란의 호주」¹²⁾등이 그것이다. 나중에 나온 세 편의 문장이 영국인의 식민압박, 당시의 전쟁 상황, 산업적 가치에 치중한 것과 비교해 볼 때 文言으로 쓰인 「남아시아에서 가장 광막한 호주」에서는 인구의 팽창과 자원의 결핍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 개척하는 것이 인류발전의 정상적인 궤도라는 논리에서 출발하여 광활한 호주의 대부분이 인구가 희소하므로 장래 이민이 가능하다면 남방의 낙토가 될 것이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서구 열강의 호주쟁탈 역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면서 현재 호주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과의 쟁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또한 문장이 실린 圖南先聲이란 칼럼은 그 명칭에서부터 중국 본위의 사고¹³⁾를 보여주며 호주의 발전사를 제시하는 대목에서도 명대 이후로 진행된 西勢東漸의 역사를 기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중국위주의 時空觀을 드러내는데 이 칼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중심의 인식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9) 退嬰, 「亞南第一廣漠之濠洲」, 『南方』 139期, 1941.10.1

10) 洪潮, 「戰雲密佈的澳洲」, 『南方』 154期, 1942.6.15

11) 大觀, 「澳洲的概況」, 『南方』 155期, 1942.7.1

12) 大原二郎, 「狂亂的澳洲」, 『南方』 172期, 1943.4.1

13) 圖南은 『莊子·逍遙游』에서 유래한 典故로 뜻이 원대한 것을 비유하는데 쓰인다.

본격적인 남방담론은 150기 이후로 많아지는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언급된 지역범위는 싱가포르, 월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과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하는 남양 제도와 인도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의 점령지가 된 소위 대동아공영권에 포함되는 범위이다. 이들 남방관련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용은 남방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제, 산업상황을 소개하면서 그 이용가치를 설파하는 것이다. 「동아공영권의 자원」¹⁴⁾은 소위 동아공영권 내 자원별 지역분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거론된 자원으로는 쌀, 보리, 설탕, 엽차, 담배, 면화, 실크와 인조사, 식용유를 짜낼 수 있는 각종 씨앗과 과일, 말린 야자와 참깨, 콩 등 식품자원에서 석탄, 석유, 목재, 구리, 철, 주석, 몰리브데넘, 마이트너륨, 코발트, 텅스텐 등 광물과 군사공업의 필수품인 안티몬과 고무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이들 자원의 생산지로 거론된 동아공영권 내 지역은 중국, 일본, 인도, 네덜란드령 동인도, 월남, 태국,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영국령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이며 지하에 묻혀있는 무진장한 자원의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고통 속의 남양토인」¹⁵⁾에서도 이러한 논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글은 인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종족지 성격의 지역학 정보를 소개하는 전형적인 문장으로 말레이인과 파푸아뉴기니인의 활동지역인 네덜란드령 동인도, 영국령 말레이시아, 미국령 필리핀을 남양으로 정의하고 이들 지역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각종 광물이 무진장하고, 개발을 기다리는 평원과 고원이 매우 많으며, 광대한 소비자를 가지고 있어 침략자들에게 원료의 공급지인 동시에 제조품의 소비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전쟁 중의 네덜란드령 동인도」¹⁶⁾에서는 서쪽으로 수마트라에서 동

14) 曉風, 「東亞共榮圈的資源」, 『南方』 150期, 1942.4.15

15) 伯孚, 「水深火熱中的南洋土人」, 『南方』 150期, 1942.4.15

쪽으로 뉴기니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의 이 지역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술라웨이 섬, 말루쿠, 방카, 벨리툽, 발리, 롬복, 솜바와, 티모르 제도, 뉴기니 등의 면적, 위치, 지세, 기후, 인문 및 교육 개황과 석유, 주석, 고무, 커피, 엽차, 설탕, 담배, 면화, 섬유, 목재, 금, 다이아몬드 등 자원을 나열하면서 지금까지는 이곳의 무역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에 의해 행해져 왔으나 대동아전쟁이 시작된 지금 네덜란드의 손에서 벗어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경제관」¹⁷⁾에서도 아시아 열대지역인 이곳의 풍부한 자원을 거듭 거론하면서 일본이 이미 이곳을 점령하여 신영토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는 앞서 보았듯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무수한 섬이 동서로 30,000마일, 190만여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에 산재해 있으며 태평양전쟁 당시 연합군이 극동방어 전략으로써 결사 방어하던 자바 섬을 포함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군에게 있어 이 지역은 남태평양 침공을 위하여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다. 일본은 1942년 2월 27일부터 시작된 자바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3월 9일 네덜란드의 항복을 받아낸 바 있다. 문장에서는 이들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언급하며 점령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농업투자」¹⁸⁾는 점령 후의 통치와 이용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의 농업과 관련된 각국의 투자액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이렇듯 『南方』의 네덜란드령 동인도 관련문장은 풍부한 자원과 각종 산업의 이용가치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안다만 제도 여행」¹⁹⁾에서는 인도양 동단 수마트라와 말레이반도 서쪽에 위치한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를 소개하면서 이곳의 울창한 삼림과 풍부한 농

16) 洪潮, 『烽火中的荷屬東印度』, 『南方』 151期, 1942.5.1

17) 東村正夫, 『荷印의經濟觀』, 『南方』 159期, 1942.9.1

18) 『荷印農業投資』, 『南方』 160期, 1942.9.15

19) 徐道之編譯, 『安達灣群島之旅』, 『南方』 183期, 1943.9.15

산물로 인한 무역이 성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남국의 낙원으로 지목하고 있고, 「미안마의 경제상황」²⁰⁾에서는 미안마의 지리위치, 교통상황을 소개하고 이어 곡창지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영국의 식민정책이 과학적인 농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 지역의 등유, 석유, 목재, 주석과 텅스텐 등의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매장수치를 제시하면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남방지역 자원과 기존산업의 활용가치, 무역상황에 대한 주목과 강조는 남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식민지 대만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1931년 만주사변을 도발하고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중국에서의 이해를 두고 영미와 일본 간에 모순이 점차 격화되었다. 나아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도발을 단행하자 미국은 강철과 석유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중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공합작으로 항일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자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중경의 국민정부는 원장(援蔣)루트²¹⁾를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남방에 집중된 중국의 보급선인 원장루트를 차단하고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남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구미 국가의 식민지인 동남아와 태평양 제도로 전선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은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하겠다. 동시에 전쟁이 일본 본토 밖에서 장기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토로부터의 물자보급이 용이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大本營은 식량과 전략물자의 현지조달을 포함하는 ‘남방 점령지 행정실시요령’(1941.11.20)을 실시했는데 이를 위해

20) 新人, 『緬甸經濟綜觀』, 『南方』 151期, 1942.5.1

21) 연합군의 대중국 군사물자 보급선으로 미안마루트, 홍콩루트,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루트, 서북루트 등이 있었다.

우선 점령지역의 현지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華僑들의 무역과 산업분야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 한문매체인 『南方』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남양 화교의 기업과 금융기구」²²⁾에서는 동인도 제도, 말레이시아, 월남, 태국, 미얀마, 필리핀 등에서 800만 남양 화교들이 경영하는 각종 기업과 이들의 무역,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금융기구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華商銀行, 華僑銀行, 利華銀行, 태국의 廣東銀行, 四海銀行, 順福成銀行, 東方商業銀行, 자바의 黃仲涵銀行, 수마트라의 中華商業銀行, 필리핀의 中興銀行, 월남의 東亞銀行, 富滇銀行 등의 자금규모와 유통지역이 매우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남양화교와 동아공영권의 건설」²³⁾에서는 더욱 자세한 수치를 동원하여 화교들이 남양 경제에서 차지하는 독점적인 위치를 제시하고 공영권내 영미세력을 배제하고 자급자족을 이루는데 있어 화교들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화교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와 송금 규모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화교를 끌어들이는 것이 남양의 건설 뿐 아니라 중국과의 친선과 제휴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당시 일본으로서는 중국에서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남양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南方』에서 汪精衛의 南京政府를 통해 지속적으로 日華親善을 강조하는 문장을 싣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²⁴⁾ 이렇게 화교들의 경제적 실력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남양 화교 문제와 재

22) 珊明, 「南洋華僑의企業及金融機關」, 『南方』 154期, 1942.6.15

23) 「南洋華僑與東亞共榮圈之建設」, 『南方』 161期, 1942.10.1

24) 『南方』은 汪精衛의 강연내용이나 남경정부 요인들의 동향도 수시로 싣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협력을 주장하는 왕징웨이, 건해가 孫文의 대아세아주의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장으로 汪精衛, 「發揚東方道義精神」(150期, 1942.4.15.)을 들 수 있다.

일본 화교의 사명」²⁵⁾은 매우 노골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장에서는 우선 재일본 화교들에게 먼저 화교로서의 자각을 거쳐 남양 화교를 지도할 책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중일전쟁 시기에 남양 화교의 대부분이 重慶政府를 지원하면서 항일운동을 했고 대동아전쟁 개시 후 이 추세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남양은 이미 일본이 점령했고 시대의 추세가 변한 만큼 화교들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 대동아 건설의 道義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의는 일본이 내세운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전쟁논리로 서방문화의 물질주의, 공리주의와 구분되는 동양문화의 정신으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동서방 문화를 정신과 물질로 유형화하여 대립시키는 이외에도 우월한 동양문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시아인의 자각을 통해 서구 제국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전쟁이 바로 그 해결책이라는 동원논리로 사용했다. 『南方』이 일본, 중국, 만주로 보급, 유통되었음을 고려할 때 한자를 매개로 화교들에게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동조하고 협력하게 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특히 화교들의 남방지역에서의 경제력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III. 서구 제국주의 억압과 東亞의 해방

앞에서 본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이미 이용 가능한 산업이 발전해 있는 풍요로운 지역이란 담론과는 달리 『南方』에는 이 지역을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억압으로 인해 피폐해진 곳으로, 또 현대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미개한 지역으로 보는 시선도 등장한다. 대만인들에게 남방문화를 건설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을 계도하자고 호소하는 문장

25) 松本於菟男, 「南洋華僑問題與在日華僑之使命」, 『南方』 161期, 1942.10.1

에서 이러한 논지가 드러나고 있다. 「고통 중의 남양토인」²⁶⁾은 상당히 규모가 있고 비교적 초기에 나온 문장으로 말레이인과 파푸아인이 살고 있는 남양 일대의 역사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네 단락으로 나누어진 문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머리맡’에서 영미의 종족우월주의가 이곳을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주민의 재산을 갈취해 갔다고 하면서 이러한 白禍에 대해 中日聯盟을 기초로 황인종 연맹을 결성하여 반서구제국주의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지를 펴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동아전쟁이 바로 이들을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남양토인들 자신이 민족적인 자각과 군사력을 가져야 하며, 각 민족 간에 분화대립하지 않아야 하고, 유색인종 중 일본만이 영도자로서 서구와 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본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대만의 지식인들이 남방으로 진출하여 문화의 힘으로 이러한 내용을 선전, 전파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즉 동아인의 “철저한 각오와 긴밀한 연계”를 위해 대만인의 헌신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한편으로는 이번 전쟁의 중요성과 위대함, 동방 王道문화의 이상과 정신을 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미 제국주의자들의 추악한 진면목을 드러내어 피압박자들이 받은 과거의 고통을 대변해야 한다. 정확하고 격양된 문자선전은 그 속에 위대한 힘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오래 동안 가려진 그들의 자각을 환기시키고 그들의 매몰된 성령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감동되어 각성하게 되면 실제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단결하고 연계하여 위대한 힘을 형성하여 동아부흥과 세계평화의 목적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각별히 힘을 기울여야 할 점이다”라고 하여 남양토인들을 서구 제국주의 압박에 종족적, 민족적 각성을 하지 못하고 꺾박받는

26) 伯孚, 『水深火熱中的南洋土人』, 『南方』 150期, 1942.4.15

존재로 그리고 있다. 두 번째로 종족지 성격의 ‘말레이인과 파푸아인의 이 모저모’에서는 지리와 자연환경, 생활 형태와 각 인종의 특색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결론적으로 남양의 거주민들은 생활이 쾌적하여 진취성이 없고 지식도 그다지 없으며 문화수준이 낮아 아직 미개한 민족이 많고 개화했다고 해도 아직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신비한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문명의 시각으로 미개한 남양토인으로 그리면서 그 원인으로 영미 등 서구국가의 식민통치를 지목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인 ‘영미와 네덜란드의 통치부분’에서는 1498년 신항로가 발견된 이래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이 차례로 물질문명과 군사력을 앞세워 낙후한 동양 각 민족을 그들의 노예로 만들어 생명과 재산을 갈취한 역사를 기술하고 이들 국가의 식민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마지막 단락인 ‘이제 남양토인들이 분기할 때’라는 제하에서는 피로 얼룩진 그들의 역사를 동일하게 피로 씻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동양 민족의 영도자인 일본이 동양의 해방을 위해 나섰으니 이에 협조, 분기하여 동아인의 남양, 남양인의 남양을 만들 때라고 주장했다. 「전운이 감도는 호주」²⁷⁾에서는 호주의 지리, 인구, 교통, 군사력, 주요도시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과거 170여년간 영국인의 착취와 식민압박으로 저항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번 皇軍이 일으킨 전쟁에 동참하여 대동아공영권 내의 약소민족 해방과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 일본군은 호주 북쪽의 뉴기니아까지 점령한 상태로 머지않아 호주로의 진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은 「광란의 호주」²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전쟁 중 영국으로부터의 보급이 끊겨 공황상태가 되고 있으니 호주인들에게 일어나 저항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황군 공략 하의 미안마」²⁹⁾에서는 미안마의 지리, 종교, 기후, 교통, 산업, 자원, 수도인

27) 洪潮, 『戰雲密佈의澳洲』, 『南方』 154期, 1942.6.15

28) 大原二郎, 『狂亂的의澳洲』, 『南方』 172期, 1943.4.1

양곤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영국의 침략을 받아 1886년 식민지로 전락한 역사를 나열하면서 이는 미얀마 남자들이 게으르고 민족자결의지가 없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논조를 동아시아로 확대하여 우리가 100년간 서구열강의 압박을 당해왔다고 하면서 이런 이유로 대동아전쟁이 발발한 것이니 이제 곧 홍콩, 마닐라, 싱가포르에 이어 황군이 미얀마를 해방시켜 대동아의 해방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군이 미얀마를 공략하게 된 배경은 그 수도인 양곤을 탈취하고, 연합군의 대중국 보급로인 미얀마루트를 차단하며 나아가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의 침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군을 중심으로 한 미국군과 중국 국민혁명군이 연합군을 이루어 일본에 대적했고 추축국으로 참군한 미얀마 방위군도 영국보다 더 강압적이고 잔혹한 일본의 통치에 못 이겨 아웅산을 중심으로 하는 반일운동을 전개했다. 문장에서 재삼 강조하는 식민통치의 압박과 동양민족의 해방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대만 지식인을 동원하여 미얀마인들에게 영국에 대한 저항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겠다. 1943년 6월에 실린 「도조 수상의 필리핀 왕립」³⁰⁾은 『每日新聞』 기자가 쓴 현지보고로 마닐라에 도착한 도조 히데키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이 자리에서 전쟁 상황과 아시아 정세를 설명하고 독립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400여년의 스페인 통치이후 들어온 미국은 사탕수수와 코코넛 등 대규모 농장의 구축과 일자리의 마련으로 필리핀인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아시아에서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들어온 후 단행한 화폐개혁과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신임을 잃었으며 여기에 천황제에 대한 교육인 소위 정신개조에 나서 필리핀인의 반감이 깊어졌고 이에 유격대를 조직해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29) 洪潮, 「皇軍攻略下之緬甸」, 『南方』 158期, 1942.8.15

30) 禮耕生, 「東條首相躬臨菲島」, 『南方』 196期, 1943.6.1

따라서 역사가 알려주듯이 여기서 말하는 필리핀의 독립이라는 것은 그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유화책이었을 뿐 실제로 일본이 말하는 동아부흥이나 세계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음은 자명하다.

이렇듯 남방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종족지의 내용을 기초로 한 군사적 작전에 있었다. ‘남방 점령지 행정실시요령’에 의하면 필리핀에 대한 행정실시요령은 점령지역의 치안회복, 국방자원의 급속확득, 작전군 현지 자활의 3대 원칙이었고, ‘남방작전에 따른 점령지 통치요강’(1941.11.25.)에서는 황군에 대한 신의, 동아해방에 대한 진의를 원주민에게 주입하여 자원의 확보, 백인 적성세력의 驅逐 등에 협조케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南方』에는 남양 각 지역이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으로 피폐해졌으며 노예처지로 전락해 있다는 문장이 매우 많다. 그 원인으로 백인 우월주의와 남양 민족의 비자각 상태를 들고 있으며 당시 일본이 도발한 전쟁이 이들 지역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져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南方』을 통해 남방 각 종족의 피식민 역사와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대만이 남방문화의 거점이 되어 이들 종족에게 동아인의 자각을 전파하도록 유도한 이유라고 하겠다.

IV. 미개한 종족과 건강한 토인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내용의 문장은 모두 남방 각 지역과 종족에 대한 지리학적, 인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種族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사와 분석을 통한 인류학적 지식의 축적인 종족지는 제국주의 시대 식민보고서에서 기인한 것으로 식민준비를 위한 것임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식민지 편입 후 대만과 조선에서 행해진 각종 인류학적, 민속학적 조사는 향후 식민정책의 수립에 참고자료가 되었다. 특히 인종학과 인류학은 식민자와

피식민자를 표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여기서는 점령지의 표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거의 모든 글에서 남방 각 지역 종족의 피부색, 의복, 미개한 생활습관, 나아가 자원 분포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당시 일본이 진출한 남방은 지역이 광대할 뿐만 아니라 인종도 다양하고 민족 간의 이질성도 현저하며 무엇보다 아직 현대문명과 접촉하지 못한 지역도 상당 수 있어 한편으로는 서구 근대의 식민통치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몽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동시에 원시림이 우거진 대자연의 신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토인들에 대한 경이의 시선도 보여주고 있다.

『반동과 수라비아』³¹⁾는 이 두 지역의 기후, 학교, 농업, 산업, 은행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기후 차이가 만들어낸 생활 풍습과 거리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피부, 얼굴, 머리결 등을 들어 반동을 미인이 많다는 중국의 蘇州에 비유하고 있다. 「뉴기니아 토착민의 기이한 풍속」³²⁾에서는 뉴기니아가 처녀지의 신비함을 간직한 곳이며 토착민인 파푸아인을 가장 원시적인 인류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곳의 복잡한 종족, 주거공간과 생활풍속, 수공예와 무기, 사회형태와 생활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이한 종교와 관념에서 기인한 장례의식을 기이한 소재로 다루고 있다. 「월남의 토착민족」³³⁾은 월남 북부에 사는 泰族의 분류와 그들이 사는 지역, 성격, 풍속, 습속, 종교 등을 소개하고 인류학적 시각으로 이들과 安南人 간의 교류와 영향도 고찰하고 있다. 결론에서 각기 다른 종족과 풍속으로 인해 동아공영권의 범위에서 지배할 방법이 문제가 되므로 일정한 거주지를 정해 각자의 풍습대로 생활하게 하고 그들의 습속에 정통한 관리를 파견 통치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방

31) 大可, 「萬隆與泗水」, 『南方』 155期, 1942.7.1

32) 杉浦健一, 「新幾內亞土著的奇風異俗」, 『南方』 174期, 1943.5.1

33) 松本信廣, 「越南的土著民族」, 『南方』 177期, 1943.6.15

각지의 종족과 지리 등에 대한 지식의 건립은 점령지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식민통치를 위한 준비가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원주민에 대한 개황과 실태조사는 대일 무장투쟁에 직면하여 지방의 치안 유지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군사적 전략차원에서 남방 원주민은 비록 미개하나 교화를 통해 장래 皇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부각되는데 이는 이전 시기에 축적된 남양 원주민에 대한 인류학적 報告들이 대동아의 이념에 걸맞게 재편성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즉 남방담론이 원주민에 관한 종족지 형태를 띠는 데는 군사작전의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불교국가 미안마」³⁴⁾에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절과 탑, 그리고 스님들의 생활과 위계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불교의 소극적 가치관과 내세관이 미안마인의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미안마인의 생활」³⁵⁾은 미안마의 쌀농사를 위주로 농업에 대한 자세한 고찰과 함께 미안마인의 의복, 습속과 음악, 악기 등 전통예술과 구미영향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성행 등 현재의 상황도 소개하고 있다. 그밖에 「안남의 전설」³⁶⁾은 남양 일대의 비옥한 토지와 미안마, 말레이시아의 불교, 회교 등 종교와 습속, 미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한 것은 남방 지역 여성들을 소개하는 문장에서 낭만적인 상상을 자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미안마의 여성」³⁷⁾에서는 여성들의 피부색깔, 장신구, 복장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들의 강렬한 생활력, 총명함과 다방면의 재능을 들면서 매우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남녀가 만나는 방식에 대한 소개에서도 “매년 여름철의 밝은 달밤, 푸른 하늘에 별들이 은빛으로 대지를 밝히고 초록의 잔디 위 종려수가 그늘을 드리우면, 얇은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34) 闕名, 『佛國緬甸』, 『南方』 178期, 1943.7.1

35) 仁, 『緬甸人的生活』, 『南方』 178期, 1943.7.1

36) 陳玉清譯, 『安南的傳説』, 『南方』 180-181期合刊, 1943.8.1

37) 闕名, 『緬甸的女性』, 『南方』 180-181期合刊, 1943.8.1

그윽한 숲에서 남녀가 즐겁게 박자에 맞추어 가벼운 스텝으로 포크댄스를 추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서로 마음에 드는 짝을 기다린다”고 하여 낭만적인 묘사를 보여준다. 「필리핀의 여성」³⁸⁾에서는 필리핀이 300년의 스페인 통치와 40여년의 미국 통치로 인해 여존남비 사상이 생겨났다고 하면서 여성들이 치장만하고 오락을 즐기는 풍습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은 대부분 서구인의 혈통이 섞인 혼혈여성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복장이나 가치관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필리핀 여성들이 대동아전쟁 발발 후 미국의 악선전으로 일본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을 맹신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남방을 아름답고 신비한 삼림으로 뒤덮인 대자연으로 묘사하거나 이곳에 살아가는 여러 종족의 기이한 풍속과 종교, 혹은 이곳 여성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전체적으로 미개하며 의식수준이 낮다고 비하하는 방식의 서술은 결국 문명의 눈으로 그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건강하고 신비한 종족이란 異國情調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일본이 전쟁을 통해 남방 지역을 정복, 점령하는 데 당위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낭만적이고 신기함을 강조하여 전쟁과 침략이라는 잔혹함을 은폐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아름답고 기이한 환상을 만들고 전파한 것이라고 하겠다.

동시에 이렇게 미개하고 비문명화된 자연성의 지역으로서 남방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문명화된 일본제국으로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배후에는 일본이 만들어낸 인종담론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서열적 위계화로 대동아공영권에서 제국, 식민지(대만/조선), 후발 식민지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였는데 인종과 성별로 제국과 식민의 질서를 세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른바 대동

38) 青木勇, 「菲律賓의 여성」, 『南方』 184期, 1943.9.15

아의 구상이란 同化의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위계화와 차별을 전제로 하여 일본과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배타적인 서열화로 줄을 세웠는데 그 이면에는 가족국가주의에 기초한 식민주의 인식이 있다. 일본 천황제 과시즘의 기저에 놓인 가족주의는 白禍에 대항하는 東亞라는 기치 하에 대동아 전쟁을 聖戰과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正義의 전쟁으로 의미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남방에 대한 『南方』의 이러한 인종담론은 기본적으로 일본 식민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종족지에서 전쟁동원으로

지리적으로 일본과 남양의 교량위치에 있었던 대만은 일찍부터 일본의 남양진출 거점으로 인식되었고 일본의 주도 하에 매우 이른 시기부터 남방에 대한 갖가지 지식이 축적되고 있었다. 1912년부터 1921년까지 우편선, 관광선등 일본의 각종 남양항선이 대만의 基隆을 경유하였고, 1918년에는 대만총독부에 조사과를 설치하고 華南, 南洋과 해외 각지의 제도와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内外情報』, 『南支那及南洋情報』, 『南支那及南洋調査書』, 『南洋年鑑』 등을 간행했다. 1910년대부터 1935년까지 대만총독부 조사과에서 출판한 南方조사서는 182종에 이르며 조사범위는 남방일반, 화남, 프랑스령 중남반도, 태국, 미얀마, 말레이반도, 필리핀, 네덜란드령 동인도, 호주 등이다. 또한 일본의 관료와 기업가로 구성된 南洋協會 역시 1916년에 台灣支部를 설치하고 강연회, 언어 강습회(말레이어, 네덜란드어, 영어, 불어)등을 열어 남양 연구자를 육성했으며 『南洋協會雜誌』를 편찬하고 여러 권의 『南洋研究叢書』도 출판하였다. 또한 東洋協會台灣支部와 대만총독부에서 발행한 『台灣時報』(1909-1945)³⁹⁾에 실린 동남아 자료만 해도 1930년대 중반까지 수천 건이 넘고 일본 제국의 남방연구기지로 불리던 타이베이제국대학 역시 1928년 설립당시

부터 文政學部 사학과에 南洋史學과 土俗學, 人種學이 중시되어 관련강좌가 개설되었고 『南方土俗』과 『南方民族』잡지를 간행하기도 했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대만은 일본의 군사적 남진에 따른 남방진출의 거점이 되어 동남아의 자원과 원료를 이용하여 전략물자를 생산하는데 동원되었다. 이 시기 대만총독부는 남방에 대한 조사사업을 끝내고 지명을 통일시키는 등 남방정복을 위한 전쟁수행과정에서 급격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총독부 조사과에서 편찬한 남방조사서만 해도 301종에 이르고 총독부 관보인 『台灣時報』의 동남아 관련 보도⁴⁰⁾ 역시 수백 여 건에 이른다.

그중 1909년에서 1937년 이전의 『台灣時報』에 나온 동남아 관련 자료를 보면 완전한 종족지 형태를 보여주는데 남방열도의 인종, 자연환경, 지리, 역사, 실업조사에서 일본과의 관계 진단, 여행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가 조사한 개략적 통계에 의하면 산업개황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황, 동식물, 지리를 포함한 자연환경, 남방열도의 역사, 일본과의 관계, 여행담, 잡담 등의 순이고, 지역적으로는 언급된 순서는 필리핀, 광범위한 남양 일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태국, 네덜란드령 동인도, 영국령 말레이반도, 자바, 미얀마, 싱가포르 등 순이다. 작자는 남양협회, 대만은행조사과직원, 華南銀行, 학자(理學, 農學, 林學, 法學, 醫學), 제국대학교수, 總督府外事課직원, 군인, 각종 회사 사장과 직원, 척식회사사장, 『台灣日日新報』 직원 등으로 조사와 분석에는 학자들이, 산업자원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남양협회, 각종회사, 척식회사, 은행 등의 인원이, 이를 보도하는 데는 기자와 신문사 직원이, 그리고 국책과 관련해서는 총독부

39) 『台灣時報』의 전신은 일본인이 성립한 台灣協會에서 발행한 『台灣協會會報』이다. 1907년 台灣協會가 東洋協會台灣支部로 개조하고 1909년에서 1919년까지 기관지 『台灣時報』를 발행했고 1919년 이후는 대만총독부에서 같은 이름으로 발행했다.

40) 周婉窈, 蔡宗憲編, 『臺灣時報東南亞資料目錄(1909-1945)』, 台北: 中央研究院, 1997.

직원과 군인이 참여하고 동원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야말로 남방에 대한 전방위적 지식축적의 예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같은 자료 중 1937년 이후에 생산된 남방담론은 우선 국책과 관련해 남방공영권건설, 남진정책과 관련된 문장이 현저히 많아졌다.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이란 전제 하에 남방 각 지역의 원주민 교육, 언어문제, 通貨문제, 남진에 따른 대만의 역할 등이 이 맥락에서 생산되었다. 또한 남방자원과 실업에 대한 소개 역시 여전히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 시기 남방자원과 대만을 결합시켜 언급한 보도가 많고, 남방華僑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도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37년에서 1945년까지 『台灣日日新報』에 게재된 기사를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台灣時報』와 동일한 성격이 주류를 이룬다. 즉 국책부분에 있어서 남진정책의 추진에 따른 각 오와 선전, 외교 신체체의 구축, 동아공영권, 남방공영권 구축을 위한 항로 개척 등 선전성격을 띠고 보도되었고, 풍부한 남방의 자원과 대만공업, 산업발전과의 관련성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근로동원, 화교문제 등이 이전과는 다르게 생산 유포되었다. 이렇게 대만의 신문에서 생산된 남방담론은 1937년 이전에는 문화인류학적 종족지 형태가 많고 전쟁기에는 선전미화와 정당성 등 국책선전의 성격이 강해지지만 전 시기를 통해 남방 자원과 이의 활용이 일관된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⁴¹⁾

이러한 기초에서 1940년대 동남아 전역과 태평양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이들 지역에 점령지가 생기면서 관방에서 생산한 남방지식은 『南方』과 같은 민간잡지에 게재되어 국책선전에 활용된 것이다. 앞서 고찰한 대로 남방 전역을 다루고 있는 글의 공통점이 매우 상세한 인류학적 정보를 가진 종족지를 기초로 하여 각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산업의 활용가치,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억압, 각 민족의 해방과 동아의 부흥을 위해 전쟁에 협력

41) 이에 대해서는 崔末順, 『無藏盡的資源與原住民的土地: 日據末期朝鮮의南方論述, 兼與台灣對照』, 『海島與半島』(台北: 聯經出版社, 2013), 431-462면 참고.

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또 적도 부근의 태평양 제도는 여전히 개척을 기다리는 미개발의 토지와 미개한 토인의 신기한 풍속 등이 주로 서술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南方』의 남방담론은 결국 전쟁수행을 위한 문화적 동원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1942년 5월 1일에 발간된 『南方』 151기의 권두언 「남방문화건설과 대만」에서 제기한 “남방공영권의 민족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우민정책과 식민통치의 고통 속에 있으니 군사를 동원해 그들을 해방시키는 이 시점에서 남방 신천지의 개척과 민족문화의 발달을 위해 우리는 本島의 특질과 경험을 활용하여 문화전사로서 남방민족에 대한 지도와 계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인류학의 조사 형태를 띤 종족지에서 드러나는 원주민의 분포와 특성, 생활방식은 남방의 경제 분포와 경제권, 자원분포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였다. 이들 문장이 인종적 정보를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지리, 환경, 인구, 자원, 역사 등의 순서로 구성되는 것에서 식민주의 기초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선의 추이에 따라 서구 식민자에 대한 저항과 아시아 정체성을 강조하여 전쟁에 협조하도록 방향을 잡아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풍부한 천연자원, 산업과 무역, 경제력의 반복적인 언급은 전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점령지에 대한 풍요로운 환상을 전파하고 남방문화의 건설이란 명분으로 대만인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무진장한 자원은 정복과 점령의 당위성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었으며 미개한 원주민은 개척자, 문명자로서의 자처하면서 대동아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고 선전하는데 적절히 사용되었다. 따라서 『南方』에서 보이는 인류학적 종족지의 문화담론은 기본적으로 전쟁동원을 위한 선전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일제시기, 전쟁동원, 남방논술, 종족지, 南方잡지

(논문투고: 2018.05.30. / 논문심사완료: 2018.06.21. / 논문게재 확정: 2018.06.22.)

참고문헌

- 南方雜誌社, 『南方』 133~188기, 1941.7.1.-1944.1.1.
- 張宗漢, 『光復前台灣之工業化』, 台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0.
- 周婉窈, 蔡宗憲編, 『臺灣時報東南亞資料目錄(1909-1945)』, 台北: 中央研究院, 1997.
- 陳慈玉, 『初論日本南進政策下台灣與東南亞的經濟關係』, PROSEA Occasional Paper No.10, Dec.1997.
- 崔末順, 『無藏盡的資源與原住民的土地: 日據末期朝鮮的南方論述, 兼與台灣對照』, 『海島與半島』(台北: 聯經出版社, 2013).
- 楊永彬, 『從『風月』到『南方』-論析一份戰爭時期的中文文藝雜誌』, 『風月·風月報·南方·南方詩集』(台北: 南天書局, 2001).

The Ethnography and the War Mobilization :
The Southern Discourse of Taiwan Media during the War
Period of the Japanese Occupation

Choi, Mal-Soon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examine the southern discourse that is revealed in the Taiwanese media in the late Japanese occupation period. Due to the geographic location that bridges Japan and the South Sea, Taiwan had been recognized as a stronghold of the South Sea. Therefore, various knowledge of the South Sea was accumulated under the leadership of Japan from a very early period. Especially in the late 1930s, Taiwan became a base for the Japanese military advancement of the South Sea, so that it is largely discussed to produce strategic materials using the resources and raw materials of Southeast Asia. At that time, the Taiwanese government general proactively prepared for the conquest to the South Sea by rapidly gathering information during the warfare. The Southern Discourse, composed of these collected data, shows a complete ethnography of the groups in the South Sea, including Philippines, French Indochina, Thailand, the Dutch East Indies, the British Malay Peninsula, Java, Myanmar and Singapore, in the form of social and natural knowledge (i.e., race, natural environment, geography, history, industry), the interaction history with Japan, and travel stories. Especially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and the Pacific War in 1941, the publication of the South Discourse had abundantly increased related to the national polici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Co-prosperity Sphere.

In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Taiwanese magazine “Nanfang” had produced various southern discourses in response to the invasion of the South Sea since 1941. Based on the highly detailed anthropological information, it had served in the war for the rich resources and the industrial value of the South Sea, the colonial repression, the liberation of each ethnic groups, and the revival of the East Asia. In addition, the Pacific Islands near the equator are mainly described as undeveloped land awaiting pioneering and filled with the mysterious, untapped people.

The description above in the “Nanfang” magazine are originated from the foundation of colonialism.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war, it emphasized the resistance to the west and the Asian identity, which reveals that its purpose is to assist the war. The statement of the inexhaustible resources and the uncivilized aboriginal people were effective in elucidating the necessity of conquest and occupation and articulating the Japanese Great East War. In conclusion, the cultural discourse of the anthropological ethnic group published in the “Nanfang” was basically the nature of the discourse for the war mobilization.

Key Words : Japanese occupation period, war mobilization, southern discourse, Ethnography, Nanfang